

일 주 문

삼국유사 목판사업 추진위원 위촉
영천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2월 26일 경북도청 (삼국유사) 목판사업 출범식에서 대표추진위원으로 위촉됐다.

42대원 천수다라니기도 회향식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3월 8일 6000여 명이 동참한 42대원 천수다라니기도 회향식을 봉행했다.

111일 관음기도 입재
서울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3월 27일 대웅전에서 '가족을 위한 행복한 동행 111일 관음기도'에 입재한다.

홍법사 108산사 순례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3월 29일 하동 쌍계사 및 산내암자 순례를 진행한다. (051)508-0345

불례형 연등회 울동리다 양성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장 해만 스님은 4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5시 연등회를 이끌 울동리다 양성에 나선다. (02)738-7860

백제불교문화대 제14기 입학식
백제불교문화대학 학장 장곡 스님은 3월 10일 백제불교회관에서 제14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신안노인전문요양원 원장
효천 스님은 3월 9일 서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실에서 신안노인전문요양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불교여성개발원 제1기 명상학교
박순 불교여성개발원장은 4월 6일 오후 2시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 자비실에서 명상리더십센터 제1기 명상학교를 진행한다. (02)722-2101

병불련, 길상사 템플스테이
김진섭 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은 3월 28~29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병불련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02)2011-1950

산청 보림선원 춘계 철야정진 법회
전근홍 산청 보림선원장은 3월 20~22일 춘계 철야정진법회를 실시한다. (055)972-9555

“회원 종단간 소통에 주력할 것”

종단협 신입 사무총장 월도 스님 30년 만에 ‘교체’, 조직 쇄신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이 30년 만에 교체됐다. 신입 사무총장은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3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입 사무총장 월도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월도 스님은 3월 10일 열린 종단협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됐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홍파 스님이 30년 동안 사무총장 소임을 맡아 종단협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사종단의 불만도 있었다”며 “월도 스님이 사무총장으로 선출됨으로써 이러한 불만들이 해소될 것이라 믿는다. 소임에 충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월도 스님은 “그 동안 회장단과 이사들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회장단을 잘 보필하는 한편 회장단과 이사들, 군소종단의 소통의 매개가 되겠다”며 “이와 함께 협의체에 머물러 있는 종단협의 역할이 대정부 창구까지 확대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월도 스님이 종단협 신입 사무총장으로 임명받고 있다.

임명장 수여 후 스님은 “홍파 스님이 사

무총장직을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해온 결과 종단협이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었다”며 “이사종단 사이의 종단협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월도 스님은 연등회에 종단협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종단 간 갈등요소 중 하나인 연등회는 그동안 종단협이 주도해야 함에도 기획과 진행에 있어 조계종을 중심으로 진행돼왔다”며 “차후에 이뤄지는 종단협의 사업은 조계종을 중심으로 하되, 이사종단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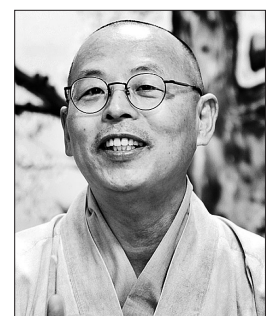
월도 스님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한편, 이날 투표에서는 총 32명의 이사들이 참가해 후보로 나선 월도 스님이 20표, 대각종 총무원장 만정 스님이 12표를 얻었다.

이사회에서 종단협 전 사무총장인 홍파 스님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홍파 스님은 “그동안 종단협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사무총장으로 원만한 일을 진행해 온 것은 회장단과 이사들의 격려와 지지 덕분이었다”며 “사무총장 소임 내려놓고 부회장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참여연대 공동대표에 법인 스님

해남 일지암 암주 법인 스님(사진)이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법인·정강자·정현백)는 3월 7일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법인 스님과 정강자 교수(인하대 초빙교수)를 새로운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이로써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김균 교수(고려대), 정현백 교수(성균관대)를 포함해 총 4명이 됐다.



참여연대는 올해 주요활동방향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 참여 구조 확대 △권력 역·남용 책임추구를 위한 기록·기억 사업 활성화 △노동과 함께하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 공공성 강화와 조세재정 개혁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 사회 만들기 △정전체제 종식과 군사주의 극복을 위한 시민행동 강화 △시민 참여·교육·문화 다양성 강화 △20주년 비전 실현을 위한 실행 계획 마련 등을 채택했다. 참여연대는 진보적 시민운동을 표방하며 지난 1994년 창립했다.

배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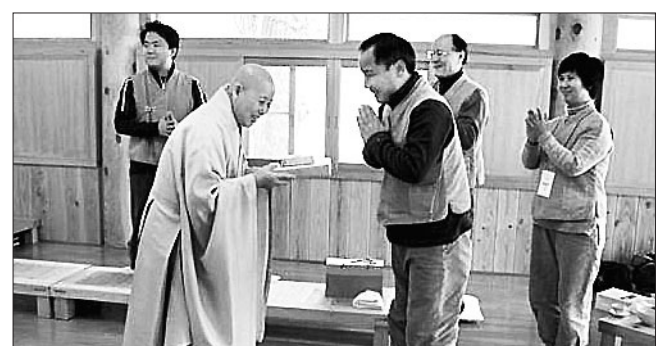
절약으로 모은 2억, 동국대 기부



부산 도원사 주지 만오 스님은 3월 12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재영)에 장학기금 2억 원을 쾌척했다. 스님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스님을 위해 동국대 내 관음장학회를 설립해 기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스님은 겨울철 직접 나무를 때서 지낼 만큼 평소 근검절약을 실천해왔다. 스님은 2012년 준공한 비구니학인 스님들의 수행관인 사라림 건립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부산 해동고와 구덕고 등의 교육 기관에서도 장학 후원을 해왔다.

노덕현 기자

서울시 문체위, 진관사 템플스테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위원장 이상목)는 3월 10~11일 1박2일에 걸쳐 진관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진관사 템플스테이 첫날 일정은 진관사 역사와 템플스테이 소개, 타종, 예불체험으로 진행됐다. 또 이튿날에는 새벽 3시 30분부터 새벽예불과 108배, 참선, 포행, 다도 등의 일정이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불교 한류 콘텐츠 제작에 나서고자”

중국 사비향남연맹의 총재 사비 박사 방한

“한류는 중국에서도 대단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자인 저는 한류와 불교를 결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을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 다큐 등을 제작해 불교의 한류화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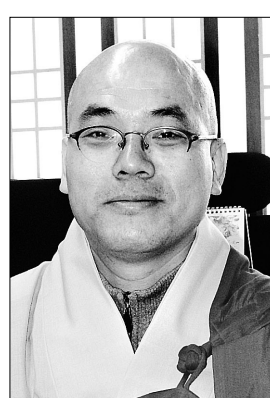


정혜승 기자 bwjhs@hyunbul.com

“승가교육 변화위한 연구에 매진”

조계종 교육원 신입 불학연구소장 보문 스님

조계종 교육원 산하 불학연구소 신입 소장에 보문 스님이 임명됐다. 교육원장 현승 스님은 3월 9일 2층 집무실에서 신입 불학연구소장 보문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현승 스님은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보문 스님은 승가교육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보문 스님은 “아직 업무 파악을 하지 못해 특별하게 추진 계획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한번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을 맡은 경험에 힘입어 빨리 적응해서 종단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2009년 이후 한국불교 승가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교육이 체계화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현대에 맞는 승가상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 무엇보다 승가교육 불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문 스님은 세영 스님을 은사로 1987년 사미계를 수계했으며, 제방선원에서 13년거를 성만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이천 영월암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참회합니다

(사) 대승불교 조계종 여러 어른 스님들.

저는 2014년 10월 22일 제 4차 총무원장으로부터 감찰부장 소임을 받은 김 능일 입니다. 지금까지 30여년 불제자 신분으로 살면서 어떤 것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중죄를 지었습니다. 현 감찰소임 중 총무원장과 종회회장의 갈등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물이 양면이 있듯이 정.사양면을 두루 분별하지 못한 죄 참회합니다. 총무원장 지시대로 개인 사병 노릇한 죄 참회합니다.

납골당 사업권의 우위를 차지 하려는 총무원장과 종회회장 사이에 총무원장 편에서 일방적인 감찰 조사 하고 공포 한 죄 참회합니다. 종헌종법 한계를 넘어 사법으로 소송비용 3300만원 사비 쓰며 총무원장 옹위한 죄 참회 합니다. 종단 위태요인 찾아 밝히고 분열된 종단 통합치 못한 죄 참회합니다. 지금까지 지혜롭게 종단발전 도모하지 못한 죄 참회합니다. 감찰소임 수행중 저로 인해 깊은 상처 입은 분들께 진심 참회합니다. 이 기회에 소임을 사임하려 합니다.

불기 2559년 3월 7일

(사) 대승불교 조계종 감찰부장 김 능일